



미 증시, ECB 회의, 인플레 불안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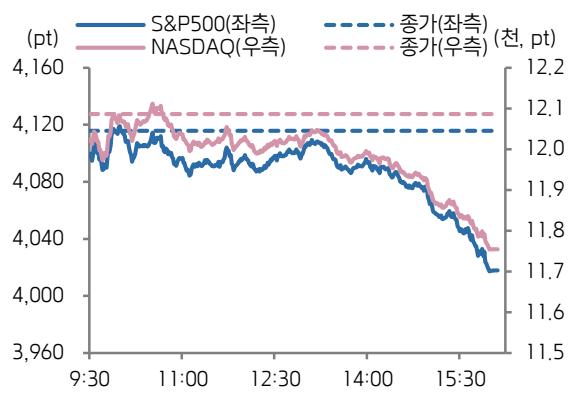
9 일(목) 미국 증시는 매파적이었던 ECB 회의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부담, 5 월 소비자물가 경계심리로 장중 낙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급락 마감(다우 -1.94%, S&P500 -2.38%, 나스닥 -2.75%, 러셀 2000 -2.12%).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7 월 1 일부로 종료한다고 결정. 7 월과 9 월에 각각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7 월에는 0.25bp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9 월에는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 9 월에 더 큰 폭의 금리인상을 할 수 있다’며 0.5bp 인상 가능성을 열어둠. 기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였으나 향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행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모습.

회의 결과 이후 독일 10 년물 국채 금리 상승, 미국 10 년물, 2 년물 국채금리 역시 상승세를 보임. 미 2 년물 국채금리는 2.81%까지 상승하며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10년-2년물 금리차는 22.5bp로 전일 대비 축소. 또한 전일 발표된 중국 5 월 수출 지표 호조 및 원유 재고 부족 등으로 유가가 120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 대비 2 만 7 천 명 증가한 22 만 9 천 명(예상치 21 만 명)을 기록하며 2 주만에 증가세로 전환. 업종별로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통신(-2.8%), IT(-2.7%), 금융(-2.6%) 등 업종이 2% 이상씩 하락. 테슬라(-0.89%)는 UBS에서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한 영향으로 장중 급등세를 보였으나 시장 급락 영향으로 하락 전환 마감.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애플(-3.6%), 넷플릭스(-4.96%) 등 성장주들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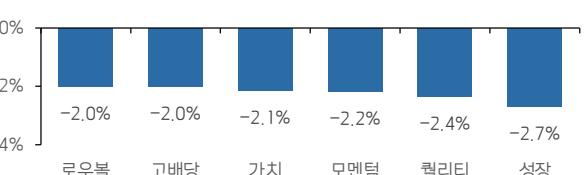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017.82	-2.38%	USD/KRW	1,256.97	+0.27%
NASDAQ	11,754.23	-2.75%	달러 지수	103.31	+0.75%
다우	32,272.79	-1.94%	EUR/USD	1.06	+0.02%
VIX	26.09	+8.89%	USD/CNH	6.70	+0%
러셀 2000	1,850.86	-2.12%	USD/JPY	134.40	+0.03%
필라. 반도체	2,937.79	-2.69%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729.10	-2.06%	국고채 3년	3.172	-2.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475	+0.5bp
Eurostoxx50	3,724.45	-1.7%	미국 국채 2년	2.811	+3.7bp
MSCI 전세계 지수	637.77	-2.02%	미국 국채 10년	3.042	+2bp
MSCI DM 지수	2,721.85	-2.21%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67.15	-0.61%	WTI	121.51	-0.49%
MSCI 한국 ETF	64.78	-1.89%	금	1852.8	-0.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8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2.37%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5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률은 1264.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소비자물가 발표를 둘러싼 경계심리의 장중 심화 여부

주요 체크 사항

- 전거래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현선물 매매패턴 변화 가능성
- 중국의 봉쇄조치 재돌입 우려에 따른 중국 관련주들의 주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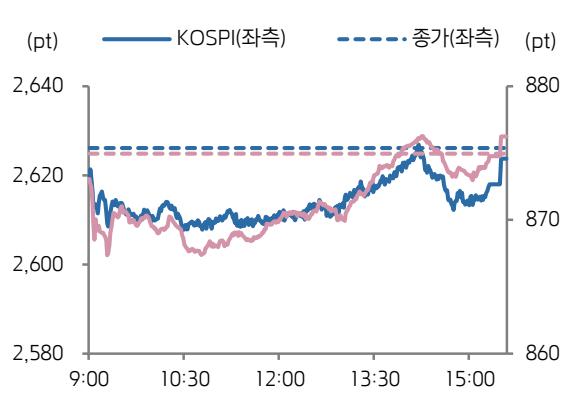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ECB 가 6 월 통화정책회의에서 7 월 25bp 금리인상을 예고한 이후 유로화 약세(=달러 강세)가 출현하긴 했으나, 독일 등 유로존의 국채금리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은 ECB 의 매파적 색채가 강화된 것을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 더 나아가 ECB 가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2010 년 이후 처음으로 이들의 물가목표치인 2%대 이상으로 제시한 가운데('22년 6.8%, '23년 3.5%, '24년 2.1%), 9 월 50bp 인상 가능성은 열어놓다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 이는 연준 뿐만 아니라 ECB 도 인플레이션 대응에 늦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조기 금리인상에 나서야 하지만,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 후행적인 정책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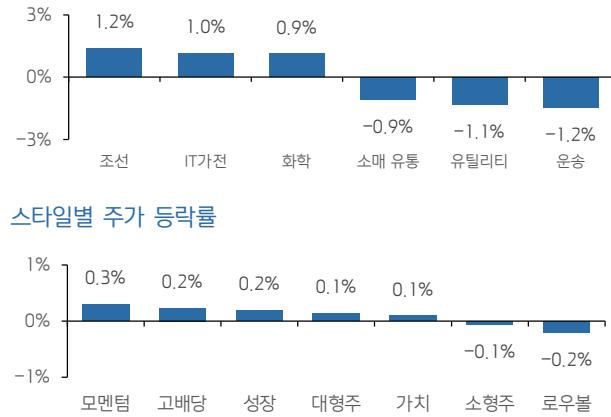
결국 피크아웃 여부를 넘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or 통제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가시적인 신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이와 관련해 10 일(금) 발표 예정인 미국의 5 월 소비자물가 결과에 6 월 중 1 차 변곡점이 될 것. 현재 헤드라인 수치 상 컨센서스는 전월(8.3%YoY)과 동일한 8.3%이며, 근원 수치 상 컨센서스는 전월(6.2%)에 비해 하락한 5.9%로 형성된 상황. 이미 6 월 이후 현재까지 인플레이션 불안이 시장을 지배했으며 이로 인한 주가 조정을 감안 했을 때, 현시점에서는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발표되더라도 시장에 중립 이상의 재료로 인식되며 단기적인 안도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

전거래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수급 이슈 등으로 보합세를 기록했던 국내 증시는 매파적인 ECB 회의 결과, 미국 소비자물가 경계심리 등으로 약세 압력을 받을 전망. 한편, 중국 베이징, 상해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 영업시설 중단, PCR 검사 의무화 등 봉쇄조치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플레이션 이외에도 또 다른 시장 불안을 유발하려 드는 모습. 그러나 지난해부터 고수해왔던 제로코로나 정책의 일환일 뿐 내수소비 냉각의 장기화 가능성을 감안 시 지난 3~4 월과 고강도 봉쇄조치의 재연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금일 장 초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은 출현 하겠으나, 악재로서의 영향력과 지속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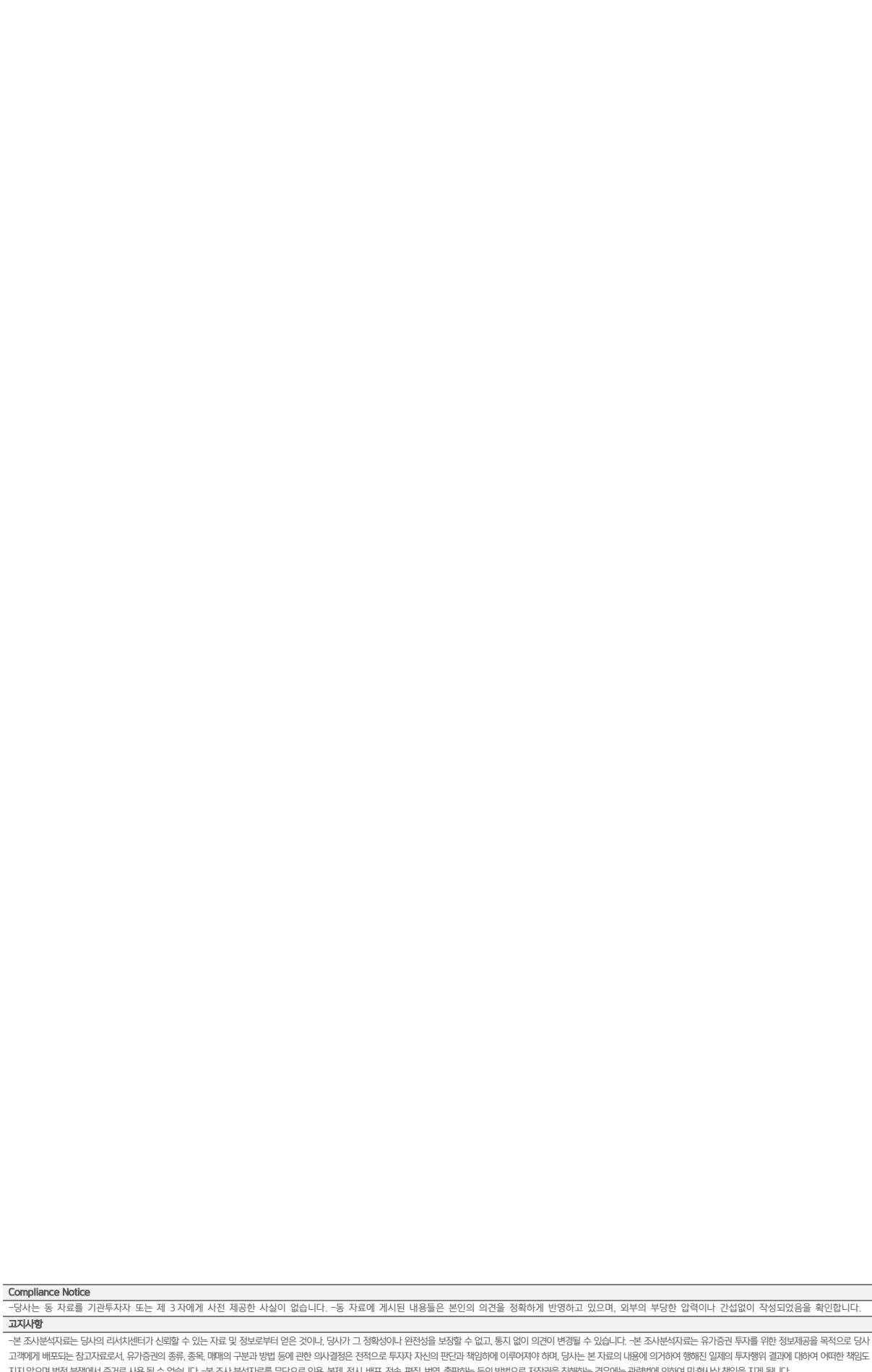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원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자리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